

“美쳤네”... 현대·기아차 SUV, 미국 소비자 사로잡다

텔루라이드 웃돈 주면서 기다려야
팰리세이드 월 5000대 넘게 팔려
신형 쏘나타하이브리드까지 흥행
신차효과로 ‘나홀로’ 회복세 전망
도요타·닛산 등 H브랜드 힘 못써

세계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출시한 신형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중형 세단 쏘나타하이브리드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현대·기아차 경쟁력이 ‘싼 가격’이었다면 현재는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며 딜러에서 프리미엄 금액을 추가해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8일 미국 현지 딜러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차 미국법인인 SUV인 텔루라



기아차 텔루라이드

이드, 스포티지 인기에 힘입어 전년보다 4.4% 늘어난 61만5338대를 판매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20 올해의 SUV’에 선정됐으며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Kelley Blue Book(KBB닷컴)에서도 ‘베스트 바이’로 낙점될 정도

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기아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 내 텔루라이드 생산능력을 기존 6만4000대에서 작년 말 8만대 수준으로 증산을 결정한 상태다.

지난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판매량도 71만4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했다. 지난해 6월 미국에 첫선을 보인 팰리세이드는 총 2만8736대가 팔리며 월 5000여대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텔루라이드를 구매하려면 딜러에 따라 5000~9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신형 쏘나타하이브리드로 이어지고 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 이후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의 인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텔루라이드 EX AWD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하면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최근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신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3개월 가량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인기는 현지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수입 브랜드에서 내놓은 경쟁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점

단 기능이 한몫하고 있다”며 “미국은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차선유지 보조와 긴급제동 보조, 스마트 크루즈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 미국서 전년도 기저효과 및 팰리세이드·텔루라이드 등 대형 SUV 신차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2020년 미국 자동차 수요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대차그룹의 경우 신차효과에 힘입어 미국시장 판매 회복세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신형 모델을 앞세워 미국 시장 판매량을 확대하는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차 판매량은 혼다만 소폭(0.2%) 증가했을 뿐 도요타, 닛산은 미국 내 성장세 둔화를 피하지 못했다. 도요타의 지난해 판매량은 238만3348대로 1.8% 감소했다. 닛산의 경우 9.9% 감소한 134만5681대에 그쳐, 현대·기아차와의 격차가 줄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AI로 기지국 제어... 5G 품질 강화

‘5G 아이콘’으로 자동 최적화

KT는 5G 네트워크 최적화와 관계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5G 품질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5G 기지국 최적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5G 아이콘(AIKON)’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지국을 자동 최적화했다.

‘5G 아이콘’을 통한 기지국 최적화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자동 조정 과정과 이를 통한 최적의 결과값 도출 작업으로 이뤄진다.

우선 기지국 주변 커버리지와 무선 주파수 품질, 건물 높이 등의 환경 데이터, 안테나의 기울기, 높이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한다. 추출한 설정 값을 원격에서 적용하고 실시간 결과치를 반영한 자동적인 미세 반복 조정 작업을 통해 약 2분 내에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KT 네트워크부 직원들이 AI 기반의 5G 기지국 최적화 시스템인 ‘5G 아이콘’을 활용해 기지국 제어를 진행하고 있다. /KT

KT는 현장에 엔지니어가 출동하지 않고도 일련의 과정을 원격에서 적용 및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와 이벤트 발생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품질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KT는 올해 새해를 맞이한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에도 ‘5G 아이콘’을 적용해 높은 5G 소통율을 기록했다. /김나인 기자

CES서 혁신상 받은 SSD ‘T7 터치’ 론칭

삼성전자 속도·보안 강화

삼성전자가 포터블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인 ‘T7 터치(Touch)·사진’을 글로벌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그 제품이다.

T7 터치는 속도와 보안을 크게 강화한 프리미엄 외장 스토리지다. 5세대 512Gb V낸드와 초고속 인터페이스 NVMe 컨트롤러를 탑재해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대비 최대 9.5배, 전작 대비 2배 빨라졌다.

지문인식 보안기능도 탑재했다. 최대 4개까지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패



스워드 방식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편의성도 갖췄다. 256비트 AES 하드웨어암호화로

해킹 위협에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 용량은 2TB, 1TB, 500GB 등 3가지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2개다. USB 3.2 NVMe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명함 수준 작은 크기에 가벼운 무게면서도 내구성이 2m에서 떨어져도 견딜만큼 높다. 출시 일정은 21일부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소비자 가격은 용량별로 129.99달러에서 399.99달러다. /김재용 기자 juk@

엔씨, 리니지2M 독주 잇는다... 세계관 확장

출시 후 첫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22일 ‘상아탑의 현자들’ 사전등록

엔씨소프트가 올해도 ‘리니지’로 탄탄한 매출 굳히기에 나선다. 새로 업데이트 될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에는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과 PC 연동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9일 경기 판교 R&D 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실시하는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 사전 등록은 이날 낮 12시에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리니지2M에 향후 적용할 ‘리모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버전의 리니지2M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 서비스로 모바일과 PC를 연동해 리니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적용일은 미정이며, 현재 조율 중이다.



리니지2M,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 이미지.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로 리니지2M의 독주를 이어갈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22일 진행될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에서는 ▲초원, 습지, 설벽 등 환경 속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성장을 즐기는 영지 ‘오렌’ ▲신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마력이 깃든 잉크’와 새로운 무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있는 던전 ‘상아탑’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보스 ‘오르펜’ ▲신규 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 사전 등록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에게 ‘오렌의 비밀 상자’, ‘계승자의 장비 세트’, ‘코로나클 계승자의 반지II’, ‘계승자의 코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를 지급한다. 쿠폰 입력은 업데이트 당일인 22일부터 가능하다.

업데이트 기념 출석 이벤트도 연다. 이용자는 이날부터 23일까지 게임에 접속만 하면 ‘상급 아가시는 획득권’, ‘생명의 돌’, ‘사이하의 숨결’ 등의 아이템을 매일 각 하나씩 받을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업데이트 당일 리니지2M을 즐기는 모든 이용자에게 특별 선물 ‘TJ의 얼리버드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TJ의 얼리버드 쿠폰’을 사용해 영웅 클래스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도 ‘리니지’의 흥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리니지2M이 성장하면, 올해 엔씨소프트 또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모든 등급 멤버십 포인트 무제한”

등급 신설 등 멤버십 제도 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일부터 자사의 멤버십 제도를 개편, 전 등급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오던 멤버십 포인트를 구·신 멤버십 제도와 등급 상관없이 모든 가입 대상으로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다양한 제휴처에서

포인트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 멤버십 제도는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홈IoT 등 5대 상품에 대한 연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 등 총 4개로 나뉘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VVIP+가 추가돼 총 5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구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 기준이었지만, 신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를 비롯해 4개의 흡상품 사용 금액까지 기준을 확대해 멤버십 업그레이드가 쉬워진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등급 신설을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VVIP+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 및 멤버십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U+멤버스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GS칼텍스 5000원 상당 주유권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